

세계 평화와 성탄

성탄의 새로운 이해

(1) 전쟁의 신비

크리스마스 캐롤이 메아리치는 12월의 거리는 살풍경하고도 아귀 다름의 환경에 한 가닥의 따뜻한 느낌을 보태어 준다. 내일, 또는 내년에도 있을 질병, 기근, 곤핍에 시달린 못 사람들이 찰라적으로나마 고통을 잊어보려고 하는 애달픔을 호소하는 노래 같이 들리기도 한다. 아니, 스스로 서 있는 곳에서 잠시나마 쌀쌀한 하늘을 쳐다보며 내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아닐까? 너무나도 고독한 한 인간의 영혼이 이 세상과 자신에 대한 휴전 조약을 맺고서 서성대는 거리에서 낮익은 얼굴을 찾아보는 시절이 바로 12월이라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일생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화평하고 조화된 삶의 연속이기 보다는 충돌과 싸움의 무대인 것 같다.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그칠 줄 모르는 대립과 긴장, 그리고 충돌로 이루어져가는 역사라고 하겠다. 오늘도 월남 전선에서는 포탄과 총탄의 정글 속에서 지친 얼굴을 한 군인들이, 초조와 불안 그리고 자기 망각에 섞인 심정으로 이 시각을 보내고 있으리라! 무엇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아니 되는가? 명예? 이권? 종족과 국가 민족을 보호한다는 대의 명분을 위한 싸움일까?

인류 역사는 그 자체가 인류의 심판이라고 어떤 슬기로운 철학자가 말했다. 싸움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신학자들의 말을 받아 들인다면 전쟁을 통한 비극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감축할 수가 있을까? 전쟁은 이처럼 심판과 축복이 함께 휘몰아치는 신비이기도 하다. 성급하게 평화주의, 인도주의를 부르짖을 수도 있고, 또 그와 반대로 전쟁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의 신비, 싸움이 가지는 수수께끼에 어두운 사람들의 고통 소리도 아랑곳 없이 여전히 인류 문화의 세계 속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전쟁의 신화와 수수께끼는 인간 자신의 신화요, 수수께끼인 것이다. 절박한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판국에 신화나 수수께끼를 앞에 놓고 머리를 갸우뚱하는 일은 몹시도 역겨운 일처럼 보일 것이다. 정말로 위급한 때에도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본다는 일은 인간이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는 방도이기도 할 것이다.

(2) 가인과 아벨의 비극

전쟁의 신화를 멀리 구약 창세기에서 찾기로 하자(창세기 4:1-8). 화창하고도 부드러운 에덴동산은 이미 사라졌다. 불 뿜는 칼을 좌우로 휘두르는 천사의 사태가 수습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금단의 과일을 먹은 데서부터 가인의 기구한 운명이 시작됐고, 바벨탑의 첫 번째 돌은 모여지게 되었다. 세계의 역사는 가인의 도끼가 다이나 마이트와 화약, 수소 폭탄, 그리고 로키트로 변하는 역사였다.

창세기에 묘사된 기록은 마치 전보 문체와도 같아서,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는지를 풀 수 있는 단

서를 찾을 도리가 없다. 같은 육천에게서 난 형제는 제나룸대표의 직업 교육을 받았다. 하나는 농부, 또 하나는 목자.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지내는 역사의 단막극에서 우리는 세계 역사의 불길한 운명을 감축하게 된다.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이나 옳은 일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사실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재수가 없어서 그럴까? 시험 준비를 남보다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가 준비한 데서는 문제가 나오질 않았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교차로에 올 때마다 정지 신호등과 부딪친다. 재수가 없다고 혀를 찰다.

이와는 반대로 만사가 척척 잘되어 가는 행운아들도 있다. 저들의 자식은 학교 성적이 우등이요, 몸도 건강하며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잘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전자는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고 후자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일까? 하나님의 자유는 이러한 편파적인 것일까? 만일 하나님의 은총을 이처럼 해석한다면 베들레헴의 말 구유, 골고다의 십자가는 모두 헛된 이야기가 아닐까?

이 신비스런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푸는 실마리를 먼저 저들의 이름 풀이에서 찾아 보자. 가인이란 뜻은 <내가 사나이를 낳았다>라는 뜻이다. 교만에 빠진 이브는 가인이야말로 장자로서의 힘과 능력을 소유한 것이라는 뜻을 이 이름으로 풍기고 있다. 아벨은 <아무 것도 아닌 나약한 자>라는 뜻이다. 이처럼 동생은 그 이름부터 형에 눌리는 뜻으로 불리워졌다. 모태로부터 형제는 어머니의 교만한 차별로 그 운명이 결정되어졌다. 어머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세계 역사의 어머니로 전락되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바로 이것

이 세계 역사가 밝아 온 과정인 것이다.

가인은 나면서부터 무슨 일이든 첫째되는 권리가 장자인 자기에게 있다고 믿었다. 권력에의 의지, 이기주의적인 고집, 이것들이 그의 피 속에 아니 우리 인간들 속에 용솨음치며 흐르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벨이 자기 육신의 동생도 아니요, 동업자도 아니었다. 다만 자기가 이용할만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주연은 내가 맡고 너는 조역이나 담당해라> 이러한 가인의 존재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가인의 모욕, 냉소주의가 바로 우리들 자신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상징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인이요, 장자라는 특권에만 자가 도취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교만의 근원이다.

옴은 선한 자가 성하고 악한 자는 망한다고 기대하고 있었다. 적어도 옴의 이런 인생관에 하나님께서 따랐더라면 옴은 틀림없이 자기의 도덕관이 옳았다고 자만했으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죽고, 집이 불타고, 그의 가족이 몰살되어 그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생겼을 때에 그는 신앙적인 파업에 돌입했었다. 가인도 이 옴의 태도와 같은 태도를 취했다. 적어도 가인이 기대하기에는 자기가 바친 제물의 연기가 수소 폭탄의 뭉게 구름처럼 하늘을 치솨아 올라갈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가치 기준을 전복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3) 가인의 후예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인 후부터 세계 역사의 막은 올려졌다. 가인과 하나님과의 유대, 가인과 이웃과의 유대는 끊어지고 말았다.

이제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위에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그가 스스로 이러한 형제애를 파괴시켜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가인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에게는 집이 없었다. 어머니 같은 대지도 그를 저버렸다. 대지가 그의 동생 아벨의 피를 흡수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흙마저 저주와 한숨과 고통으로 범벅이 되었다. 가인은 이 대지에서부터 열매를 억지로 거두어서 먹어야만 했다. 그가 휴식할 곳은 이 땅 위에는 없었다.

아마도 가인 자신은 자기가 살인자라고 느끼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벨이 장자인 자기 지위에 어떤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졌을런지도 모른다. 가인은 현대인들이 생존 경쟁의 싸움터에서 마주치는 양자택일을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남을 죽이거나 희생시켜서 자기의 생존권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고 반문하는 일이 가인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하기야 가인으로서 친동생을 죽인다는 일이 꼭 어려웠으리라. 그러나 가인에게는 그것이 피치 못할 생사에 관한 문제였다. 이러한 처참하고도 냉혹한 삶의 싸움터에 있어서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지 않은가? 하나님은 본래 교회나 제단에서 섬길 것이지,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현실 생활에는 관계가 없지 않은가? 가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가인의 이러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제단이나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그가 일하는 자리에서, 그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마주 서신다. 그리고 “보라 내가

여기 있노라”하고 가인에게 호령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형제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종교 단체나 제단을 쌓은 교장에서 자신을 선포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동하고 일하는 직장에서 또는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문득 우리를 향해서 “너의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 그것은 한 인간에 대한 질문이다. 아마 우리가 죽인 사람, 우리의 말로나 행실로써 해치고 그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4) 전쟁과 평화

이상에서 나는 전쟁과 인류의 투쟁의 신비스런 기원을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찾아 보았다. 이 사건은 창세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꿰뚫는 중요한 테마라고 볼 수 있다. 현대의 전쟁도 이를테면 가인과 아벨의 질곡의 연장이요, 재연이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전쟁은 새로운 양상을 띄게 되었다. 원자력의 발명과 또 미사일의 발전 등으로 전쟁은 인류 전체의 멸망을 초래할 가능성에 마주치게 되었다. 이러한 대량 살육의 무기가 발전됨에 따라 정의의 전쟁이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전쟁의 도덕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국가 안전과 방어를 위한 전쟁이라는 핑계가 정당화될 수 있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그러한 한계선도 분명치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핵무기의 발달로 말미암아 침략 국가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다는 일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전쟁 보다는 목전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강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항구적인 평화는 정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정의와 평화의 긴장 관계는 풀어질 길이 없고 그 관계 속에 현대 역사의 딜레마가 있다. 라인홀드 니버가 말한 것처럼 “원자 무기의 발전이 도량의 딜레마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딜레마는 단순한 평화주의나 또는 이와 반대로 전쟁을 주장하는 일로 간단히 해결되어질 수가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평화주의자들의 단순한 소망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교에 있어서는 인간의 죄악은 인간과 역사 속에 뿌리 깊히 박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생명과 역사는 가인과 아벨의 후예로써 비극적이요,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들의 감상적인 평화주의자들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평화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의 법칙과 인간의 죄악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인간 사회의 바닥에 굳건히 깔려있다는 현실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저들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복잡한 사회 문제나 국제간의 알력은 자연히 해결된다고 한다. 이를테면 저들은 정의의 복잡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정의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일과 또 이 강제력에 항거하는 일로 말미암아 성취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대의 그리스도교적인 평화주의는 하나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평화주의는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르네상스의 정신으로 곡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성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이 언제나 악한 일을 쉽게 이기고 해결된다고 말할 수 없다.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죄의

질곡 속에서 진전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평화주의에 대한 그리스도교적인 비판에도 물론 함정이 있다. 죄가 불가피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신앙의 규범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우리는 전쟁의 죄됨을 분명히 말해야 한다. 다만 우리는 개인의 자기 중심이 인간 생활에 뿌리 깊이 박혀 있으며, 전쟁은 그러한 개인 정신의 역사적인 표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 상대적인 정의이며, 어떤 것이 독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요, 문명과 정의의 원수를 무찌른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문명을 파괴하고 스스로가 독재에 빠지게 된다는 역사적 아이러니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교는 평화주의를 하나의 이단이라고 하는 동시에 그 이단이 지니고 있는 상대적인 장점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중세기의 금욕적인 완전주의자들이나, 또 프로테스탄트의 종파적 완전주의자들의 생활에서는 저들이 결코 인류 역사에서 전쟁과 대립을 온전히 해소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 완전주의자, 평화주의자들은 악과 전쟁의 신비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며 다만 온전하고 깨끗한 개인 생활의 실천이 천국의 징조라고 믿었던 것이다. 만일 이러한 평화주의가 사회나 국제간의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인간을 해방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고 하면 그리스도교적인 견지에서 이를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개인 중심의 평화주의나 완전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생활이 언제나 이상과 자연 생활과의 충돌에서 생겨지는

가인과 아벨의 깊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기생적으로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생적인 평화주의 (parasitism)가 부패하면 바리새주의 (pharisaism)로 바뀌지고 만다.

모든 국제간의 알력과 분쟁에는 언제나 국가의 정치를 맡은 사람들의 병리학적 사고 (pathological thinking)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곤 한다. 역사에서 전개되는 불화와 분쟁의 근본에는 역시 가인의 병리학적인 사고 방식이 있다. 그 병리학적 사고는 망상을 고집하는 편집병 (paranoia)이요, 투사 (projection)이다. 가인의 생활에서 우리는 파라노이아 심리 상태를 보게 된다.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가인은 피해자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아벨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서 자기의 피해 망상을 극복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즉 그러한 자기 망상의 책임을 아벨에게 돌리려고 했고,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이까?”하고 대답을 했던 것이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러한 병리학적 사고 방식을 현대 국제 정치와 평화 문제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매우 뜻있는 말이다 (May Man Prevail? p.25). 이러한 병리학적 사고의 특징은 이중 사고 (double think)이다. 현대의 동 서 양 진영에서 이러한 이중 사고적인 국제 정치에 집착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가인의 정신이 20세기에 도 살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요컨대 이 이중 사고는 죠지 오웰이 독재주의 사상의 과정을 묘사하는데 쓴 용어이며 그것은 “한 마음 속에 서로 모순된 신념을 고집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 사고나 병리학적인 사고는 그것이 병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에도 큰 위협이 된다.

(5) 성탄의 새로운 이해

크리스머스는 케리그마인 동시에 디아코니아적인 것이다. 그것은 선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봉사로 구체화 되는 하나님의 수육(incarnation) 이기도 하다. 이즈러진 심정과 대립과 질곡 속에서 입은 상처에 치유의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 크리스머스의 메시지이다. 그것은 순식간으로 맛보는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라, 새 비전을 보여 주며 화해와 치유의 가능성을 터주는 계기인 것이다. 도시, 기생충에게는 문제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생충은 문제성에서 그 피를 빨아 먹기 때문에 문제성을 고갈시키고야 만다. 그러기에 기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머스의 문제성이 별로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기생충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놀라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크리스머스는 인간이 먼저 자아와의 화해를 권한다. 가인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가 화해되고, 이러한 가인의 자기 모순과 질곡을 넘어서 새 창조를 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 크리스머스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승리의 기쁨을 아는 자에게는 언제나 문제성이 풀고 루 이해되며 역사의 드라마 속에 전개되는 인간의 죄악과 비극의 차원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거리의 징글벨과 크리스머스 캐롤은 환상을 쫓는 허황한 멜로디가 아니라, 참 소망과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기쁜 소식일 수 밖에 없다.